

# 주부, 30대 고졸 이상이 독서량 많다

## 서울시내 '이동도서관' 창구에 나타난 주부독서 실태

자녀들이 책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선, 먼저 부모가 늘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은 상식이다. 특히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주부들의 독서습관이 중요한데, 자녀에게 책을 사주고 독서를 지도하는 일이 대개는 주부의 몫이라는 점에서 한 가정의 주부가 평소 어떤 종류의 책에 관심을 갖고 가까이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우리나라의 주부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독서에 투자하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책을 선호하고 있는가.

주부들의 독서행태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20여대의 이동도서관 이용자 중 50% 이상이 주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동도서관의 창구를 통해 주부독서생활의 한 단면을 살펴보는 일은 가능하다.

### 중산층 주부층이 '독자'의 주류

서울시내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역삼분관, 시립남산도서관, 그리고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등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서울시내 340개 지역을 17대의 차량이 순회운행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과 시립남산도서관은 이보다는 소규모여서 후자의 경우 서민층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전용특장차 1대가 30개 지역을 운행하고 있다.

이동도서관의 운영이 아파트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로, 시립남산도서관의 이승철 이동도서 열람과장은 "일정 시간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즉 아파트 단지에서는 스피커시설이나 부녀회를 통해 효율적인 홍보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의 경우는 아파트지역이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대신 일반주거지역이 57%에 이르고 있고, 상가와 공장지역도 각각 15%와 1%를 차지하고 있다. 각 기관에 따라 이동도서관의 순회지역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산층 시민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부유층 거주지역이거나 중류층 이하의 지역에서는 이용이 저조하다는 것이 일선실무자들의 공통된 견해인데, 전자의 경우 개인

장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 해도 역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독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서울특별시지부에서 86년 5월부터 88년 9월까지의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한 최근 통계를 참고하면, 전체 이용자 중에서 57%가 주부층이고 연령별로는 30대가 38%, 학력별로는 고졸자 이상이 76%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어느 수준의 학력을 갖춘 30대 주부가 가장 활발하게 독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대출 현황면에서는 전체 대출권수 중에서 역시 소설과 수필을 포함한 문학류가 91만권이 넘어 가장 많았고, 아동도서도 77만여권이 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립남산도서관측의 통계도 이와 비슷한 대출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88년 1월부터 10월15일까지 대출된 11만여권 중에서 어린이동화를 포함한 문학류가 9만여권을 넘어서고 있어, 역시 스스로의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한편 자녀들에게 좋은 책을 빌려다 주려는 주부들의 발길이 가장 잦은 것으로 보인다. 시립남산도서관의 실무자 임윤철차장은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는 지역에선 우선 주부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어린이책과 육아·생활실용서 부분의 대출을 권장한다. 이런 단계를 거쳐 서서히 주부들 자신을 위한 교양독서로 유도해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 애정소설·추리소설·수필류 선호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입구에 정착해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30대 주부 이선악씨는, "2주일에 한번씩 순회방문하는 이동도서관을 항상 이용한다. 수필과 국내소설을 자주 빌리지만, 6살짜리 아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두세권의 어린이책을 빌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부들이 선호하는 문학류를 좀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애정소설·수필·추리소설·역사소설順으로 많이 대출되고 있는데, 역시 시중에 널리 소개돼 있는 베스트셀러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박경리의 「토지」, 김수현의 「모래성」,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 등은 책이 없어 대출을 못받을 정도. 따라서 주부들이 도서정보를 얻는 매체로는 TV와 영화, 신문잡지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는 도서관이 이용자를 찾아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동도서관은 전가족의 서구실을 하며 점차 정착되는 추세에 있다. 사진은 새마을 이동도서관에서 자녀와 함께 책을 대출받는 주부들의 모습.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들은 선정위원회를 거쳐 장서를 갖추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나 구성면에서 고른 분포를 보인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이들 이동도서관 전용특장차(시립도서관: 미니버스·적재량 2500여권, 새마을이동도서관: 2.5톤 콤포트·적재량 2500~3000여권)에는 평균 3~5명의 담당자가 탑승해 대출·반납업무는 물론 부족하나마 도서안내까지 맡고 있다는 점에서, 주부들의 건전한 독서풍토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원하는 신간도서를 제때 보기가 힘들다. 특히 잡지류가 전혀 구비돼 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구입하기 아까운 월간지들을 보기 위해 종종 사설이동도서관을 이용한다"는 20대 주부 이연정씨(창동 상아아파트)의 말처럼, 아파트지역의 주부들 사이에서는 특히 사설이동도서관의 이용도가 높다.

공공이동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상업적인 사설이동도서관이 서울시내에만도 100여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서울시내 뿐 아니라 과천·인천·안양 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조성돼 있는 아파트밀집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숫자를 가산한다면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 비산동 진흥아파트단지 한곳만 살펴봐도 3대의 사설이동도서관이 매일같이 번갈아 찾아오는데, 그 중 하나인 윤이동도서관의 김정화씨에 따르면 월평균 50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릴 정도로 운영이 잘 된다는 것이다.

### 저질의 '덤핑도서' 많아 문제점

공공이동도서관의 경우 무료대출인데 반

해, 대부분의 사설이동도서관이 소설의 경우 1주일에 평균 400원, 신간 월간잡지의 경우 700원씩을 받고 빌려주고 있으며 연체료로 200~400원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동도서관'이란 용어보다는 '이동대본소'라는 말이 더욱 정확하다.

이용자들은 주부(70%)·어린이(20%)·남성(1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린이들이 빌려 보는 책은 만화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특히 역사소설과 무협지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며, 주부 층에서는 대부분이 잡지류에 치중돼 있고 연령별로는 30대 주부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고 사설이동도서관 운영자들은 말한다. 40대만 넘어서도 주부이용자가 뜨약하다는 것이다. 상계동 주공 1단지 옆 미도아파트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사설이동도서관 박기석씨는 최근에 잘 나가는 책으로 「토지」를 꼽았고, 「영부인 마님 정말 너무해요」 「대통령 아저씨 그게 아니어요」 등의 정치풍자공포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 유료 이동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서의 상당부분이 저질의 덤핑도서이며 개중에는 음란에 가까운 성인만화도 상당량이라는 점이다. 공공기관 이동도서관 종사자들은 건전한 독서생활과 독서운동에 저해되는 존재로 이들을 평가하고 있지만, 30대주부 문성희씨(안양시 진흥아파트)를 비롯한 일반이용자들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낫다"는 반응이고 보면 공공기관이동도서관들의 적극적인 활성화와 함께 보다 많은 정책적 뒷받침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 오애리 기자